

**[서평]**

인본주의(Humanism)에서 사이보그-견본(犬本,  
caninism)주의로: 『해러웨이 선언문』(책세상,  
2019)에 관해

임옥희\*

1.

무엇보다 『해러웨이 선언문』과 접하면서 왜 선언문 선집인가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다. 20세기 후반에 나온 『사이보그 선언』(1985)과 21세기 초반에 출현한 『반려종 선언』(2003) 사이에는 20년에 가까운 시차가 있다. 『사이보그 선언문』이 레이건 체제 아래 나온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선언문이라고 한다면, 『반려종 선언』은 9.11을 경험한 부시정권 아래 등장한 선언문이었다. 두 선언문 사이 세기가 바뀌었다. 동구 공산권은 무너졌고, 고삐풀린 자본주의는 의기양양하게 ‘역사의 종언’을 고했다.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한 만큼 두 선언문 사이에 이론적 편차는 상당하다. 기술과학 시대의 사변적 유토피아를 상상했던 『사이보그 선언』과 그와는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정치 윤리에 바탕한 『반려종 선언』을 함께 묶은 의도가 바로 그런 편차를 보여주려는 것은 아닐까? 그런 궁금증은 이 책에 부록처럼 첨가된 캐리 울프와 해러웨이 두 『반려자들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

다녀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이 등장한 1985년 무렵, 미국은 구

---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소비에트연방과 군비경쟁과 ‘우주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기술과학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공두뇌 유기체인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 군사기술발전의 파생물이었다. 말하자면 다국적 군산복합체와 더불어 C<sup>3</sup>I(명령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첩보intelligence)로 코드화된 시대의 아이러니가 사이보그였다. 『사이보그 선언』은 그런 시대적 맥락 속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살아남아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거대담론이자 거창한 기획이었다.

미국에서 1970년대는 제2물결 페미니즘의 전성기였다. 하지만 1970년대 천둥 번개와도 같았던 페미니즘의 목소리는 1980년대에 이르면 폭발적인 분출만큼이나 급격하게 잦아들었다. 10년 사이 미국 페미니즘의 지형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수전 팔루디가 『백래시』에서 1980년대 안티페미니즘 현상을 분석했다시피, 사회문화적으로는 네오라이트와 같은 도덕적 다수파들의 공격,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시대 레이저노믹스의 심화, 정치적으로는 진보세력의 신보수화 등으로 페미니즘은 열세에 몰리게 되었다. 심지어 페미니즘 진영 안에서도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래디컬 페미니즘의 공격대상이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노동, 자본, 계급을 중심으로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를 적대세력으로 설정했다면, 그에 비해 래디컬 페미니즘은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이원체계(계급과 젠더에 바탕한)론을 비판하면서 젠더 중심으로 의제를 전환했다. 래디컬 페미니즘은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겠다는 거창한 목표 대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임을 주장하면서 여성의 몸, 임신, 출산, 양육, 낙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의제화하고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에 적대했다.

기술과학의 시대 실리콘 벨리의 집적 회로 속 여성들은 핵가족 중심의 가정경제와는 달라진 가족생태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가정주부와 같은 이상적 핵가족 모델은 교외에 사는 백인중산층 정규직 가정에서나 가능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면 가정, 시장, 국가, 병원, 직장, 학교, 교회와 같이 사회의 전문야가 신자유주의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 사회복지체계는 축소되고 시민사회는 위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로서 해러웨이의 해결책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처럼 정체성의 정체가 아니라 친밀성(affinity)의 정치였다.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계급, 민족, 국적, 종교, 교육, 나이 등 다양한 차이가 교차하는 공간으로서 여성들은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차이로 ‘인해’ 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해러웨이는 낙관했다. 다름과 차이로 연대한 친밀성의 정치를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라는 은유로 설정한 셈이었다.

영성, 여성성, 생태에 주목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기술과학을 남성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반응을 보인 것과는 달리, 해러웨이는 기술과학의 발전을 경외감으로 대했다. 인공두뇌 유기체인 사이보그는 기술인본주의와 제국주의 군산복합체의 부산물이었다. 이처럼 군비경쟁과 냉전시대의 산물인 사이보그를 패륜적인 방식으로 가져와서 페미니스트 스스로 사이보그가 되자고 해러웨이는 창안했다. 말하자면 “이 지구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이보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사이보그 선언은 한편으로는 군산복합체 다국적 자본주의의 위력에 대한 응전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페미니즘 진영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활로 모색 프로젝트였다.

## 2.

사이보그는 서구 이분법의 경계허물기에 관한 은유다. 사이보그는 기계/인간, 유기체/동물, 물질/비물질과 같은 이분법적 범주의 위반이다. 따라서 사이보그는 인간/기계/코요테/사기꾼/뱀파이어/몬스터/여신처럼 온갖 이종들의 결합이자 잡종들의 짜집기다. 차이의 그물망이다. 그런 잡종 사이보그는 순혈주의에 바탕한 ‘순종’ 백인 인종주의를 농담으로 만든다. 남성과학의 패륜아로서 잡종 사이보그는 트랜스, 퀴어들과 친족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이보그 선언이 ‘퀴어가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하는 오늘날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사이보그의 관점에서 과학적 진리/소설적 허구와 같은 이분법은 유머에 지나지 않는다. 해러웨이의 다양한 지적 변천사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된 주제가 과학의 서사성이다. 해러웨이의 시선 아래 (남성)과학은 보편적 진리라기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된 담론이자 허구가 된다. 생물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러웨이에게 ‘객관적 사실’은 내러티브를 가진 허구와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에게 과학 역시 공상과학 소설(Science Fiction)과 마찬가지로 다. 그녀는 사실과 허구를 화용론으로 구분한다. 사실(fact)은 과거분사이고, 허구(fiction)는 현재진행형이다. 사실은 과거분사형으로 고정될 때 진리를 담보하는 특권적 지식이 된다. 사실이 행위 중에 있는 허구의 반복적인 실행 끝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고착된 것이라고 한다면, 허구가 오히려 사실을 발명하는 셈이 된다. 과학은 사실이라는 죽은 지식을 발명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허구적 경험을 박제한다. 그것이 과학이 자신을 진리담지자로 구성하는 신화적 과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해러웨이는 과학이 객관적 사실성을 제공한다는 신화에 페미니즘의 유머와 아이러니로 대응하자고 요청한다.

해러웨이에게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사이버 페미니즘과 다르지 않고 그런 사이버 페미니즘의 핵심에 사이보그가 있다. 해러웨이에게 SF는 사이보그의 서식지이자 공급처다. 해러웨이에게 SF라는 기호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과학소설(Science Fiction), 사변적 미래(Speculative Future), 사변적 우화(Speculative Fables), 과학 환타지(Science Fantasy), 사변적 허구(Speculative Fiction), 사회주의 페미니즘(Socialist Feminism), 실뜨기놀이(String Figure), 여기까지 혹은 여태까지(So Far), 등. SF는 측면으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사이보그 상상력을 SF 작가(어슐러 러킨, 조애너 리스, 옥타비아 버틀러, 본다 매킨타이어,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 마지 피어스 등)들의 소설에서 차용한다.

해러웨이는 여성이 살아가는 현실의 변혁가능성을 SF적인 상상력에서 찾았다. 본다 매킨타이어의 『슈퍼루미널』에서 유전적으로 변형된 잠수부

오르카는 심해의 범고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피일렛이 되어 우주를 탐험하고자 갈망한다. 여성인간이면서 수중 포유류와 유전자를 나누고 이족 보행자이면서 독수리처럼 날고 싶은 그녀는 온갖 존재위반의 돌연변이이자 종(種)들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 존재다. 마지 피어스의 『시간의 경계에 선 여자』들에게 퀴어가족구성은 비정상적이고 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다.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젠더전환이 가능하다. 알엄마, 자궁엄마, 양육엄마가 전부 다룰 수 있는 곳에서 생물학적 부모는 무의미하다. 젠더/섹슈얼리티의 트랜스가 자유로운 곳에서 적어도 세 명의 엄마(아빠라고 해도 상관없지만)가 한 아이를 보살피기 때문이다.

혼종 키메라 언어는 경계위반의 사이보그적 글쓰기의 모델이다. 그것은 유색여성들의 언어정치이자 그들의 언어를 공용화페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페미니스트의 시조 어머니는 사생아들의 조상이자 언어적 혼혈이고 민족의 배신자인 말린체이다. 체리 모라가의 소설이 모델로 삼고 있는 말린체는 멕시코를 정복한 코르테스의 정부이자 통역관이고 민족의 배신자였다. 말린체의 언어처럼 모라가의 언어 역시 스페인어/영어/토속어가 뒤섞인 키메라 언어다. 모라가 또한 이성애 남성의 성적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민족 남성을 배신한 레즈비언이다. 그들은 민족국가, 종교, 젠더, 계급 온갖 범주를 가로지르는 퀴어들이다. 체리 모라가와 글로리아 안젤두아가 공동 선집한 『나의 등이 라고 불리는 다리』는 유색 퀴어 여성들의 연대로 가능해진 글쓰기의 한 모델이다.

사이보그 윤리에서 진리/허구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처럼, 해러웨이에게 여성/남성/인간의 성역할 구분과 젠더 범주 구별들 역시 부질없는 것처럼 보인다. 새 시대의 희생자이자 승리자이며, 시간을 변형시키는 퀴어들과의 만남, 사이보그 몬스터와의 결합을 미래의 약속이라고 해러웨이는 선언한다. 오로지 ‘생물학적인 여성만’이라는 정체성의 주장은 생물학자인 해러웨이에게는 지나친 농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녀에게 퀴어 혼종 뱀파이어, 사이보그는 형제자매가 된다.

『사이보그 선언』에서 레즈비언 뱀파이어 서사는 서구 가부장제 기원신화로써 오이디푸스 서사를 패러디한다. 오이디푸스 서사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승계되는 부계 서사다. 부계 서사에서 여성은 스팅크스처럼 제거된다. 하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제거된 여성들은 죽지 않고 뱀파이어가 된다. 해러웨이에 의하면 뱀파이어 이미지는 기독교 부활서사, 프로이트의 가족 로망스의 조롱이다. 그들은 가부장적인 상징질서에서 자기 장소가 없는 비존재들이자 어둠의 그림자이며 생식하지 못하는 질병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은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다는 말이다. 여성화된 젠더의 목소리는 의미화될 수 없고 따라서 비장소/비존재/비가시적이 된다. 체리 모라가의 레즈비언 혼종 3세계 여성들처럼 뱀파이어는 순혈주의가 만들어낸 상상된 인종주의에 대한 반격이자 성차별주의, 동성애 혐오에 저항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가부장제라는 숙주를 내파하는 바이러스들이자, 유령적 글쓰기의 공간을 열고자 하는 ‘여성적’인 열망이기도 하다. 뱀파이어성은 건강한 비장애 여성에 정상성과는 다른 지점에서 귀어한 친족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적 장소다. 부식과 오염과 혼종을 두려워하지 않는 뱀파이어성은 기괴한 친족들과 보철하고 뱀질하는 것을 혐오하지 않는다. 이처럼 온갖 경계와 범주가 해체되고 위배되는 시대에, 부적절한/해진 타자들의 정치를 사이보그화로 전유하려는 것이 해러웨이식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정치다.

### 3.

반려종 선언이 등장한지 15년이 되었다. 그 사이 동물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의식도 변하는 중이다. 이제 군산복합체보다 동물-산업복합체가 주목 경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9년 현재 한국사회는 고령화와 더불어 급속한 가족의 구조조정과정에 있다. 1인 가구 비율이 28.9%에 육박하고, 반려동물인구 천만시대가 되었다. 펫코노미가 성업 중이다. 수많은 반려

동물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은 ‘개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을 발휘한다. 『반려종 선언』에 등장하는 네덜란드 환경여성주의자 바버라 노스케(Barbara Noske)처럼, 그는 폭스 테리어 종이 인간을 물어뜯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단호하게 그런 개는 죽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한동안 인터넷을 달궜다. 강형욱의 주장은 범죄를 저지른 반려견을 사형집행하지는 것처럼 들렸다. 그런 주장은 역설적으로 개의 책임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개를 살해하고 먹는 행위는 소, 돼지, 닭, 양을 잡아먹는 것과는 달리 ‘식인’ 행위나 다를 바 없다. 반려견 상실은 가족의 상실에 버금간다. 펫로스 증후군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랑을 배신하는 인간들과는 달리 반려견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하고 평생의 반려로서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생태서식지의 변동에 따라 인간과 동물이 맺는 관계 또한 이처럼 달라졌다. 자기 자식들이나 손녀 손자들을 모임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런 사람은 기피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우리는 관대하고 ‘교양있게’ 인내한다. 인간의 저출산시대, 마치 뱀새의 알을 밀어내고 자기 알을 가져다놓는 뱀꾸기처럼, 반려견은 인간의 알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인간과 가장 친화적 관계로 공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대중화된 반려동물과의 관계맺기는 『반려종 선언』에서 해리웨이가 말하는 그런 관계맺기와는 거리가 멀다. 「TV 동물농장」과 같은 프로그램 등은 반려동물들을 이성애 일부일처가족 중심의 의인화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 아빠, 엄마, 딸, 아들과 같은 호명은 의인화된 친족 언어다. 수컷 동물은 암컷 동물을 질투하고 다른 수컷이 다가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삼각관계의 막장 드라마 서사가 자막으로 강요된다. 다른 종끼리의 비이성애 관계도 인간 이성애로 환원해버린다. 죽을 힘을 대해 새끼들을 보살피는 흠리스 길냥이의 모성은 칭송의 대상이다. 이처럼 어떤 동물들의 관계든 이성애 친족 언어로 포섭된다.

결혼한 이성애 일부일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코드로 해석함으로써 동물 자체와 동물의 언어는 삭제되어 버린다.

인간은 생식과는 상관없이 쾌락을 위한 쾌락을 즐기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믿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해러웨이의 관찰이다. 『반려종 선언』에서 보다시피 중성화 수술을 한 여자 동물 카옌과 정력 넘치는 젊은 남자 동물 윌렘은 그야말로 다형도착적인 성애를 즐긴다. 둘의 관계는 동물이 생식을 위해서만 성관계를 한다는 인간 사회의 신화를 조롱한다. 이들의 에로스는 이성애 생식으로 연결되는 이성애적 짝짓기 행동과는 무관하다. 그들의 성애적 놀이는 이성애 재생산을 위한 체계 모니를 웃음거리로 만든다.

해러웨이의 반려종은 동물해방론자들처럼 단지 동물권을 주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반려종은 반려견처럼 생물학적인 실체가 아니다. 반려종은 반려동물보다 크고 이질적인 범주이며 공구성, 유한성, 불순성, 역사적, 복잡성으로 이뤄진 해러웨이식 발명품이다. 반려종은 나와 너 두 종이 서로가 서로에게 타자 되기이자 공생발생적 관계맺기다. 반려종은 따로 존재하거나 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 속에서 공구성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두 타자가 있어야 반려종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본다면 반려종은 인간 반려종과 동물반려종이 서로에게 합체되고 변형되는 사이보그와 다르지 않다. 『반려종 선언』에 이르면 사이보그는 반려종의 우산 아래 자매로 자리하게 된다.

해러웨이의 『반려종 선언』은 인본주의(humanism)가 아니라 견본주의(caninism) 선언이다. 두 반려종인 인간과 반려견이 서로 타자를 배려하고 공생하는 법을 배우려면 어떤 관계에서나 마찬가지로 훈련, 교육, 능력개발, 노력과 일하기의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인간이 진정으로 동물의 주인되기는 힘들다. 동물은 인간을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동물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되고, 자신의 ‘참정권’을 얻게 된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처럼 말이다. 동물이 가진 자질을 개발하고 성취를 통해 동물만족에 도달하는



것이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말하자면 동물이 자신의 탁월함(arete)에 도달하는 것이 행복인 셈이다.

그러기 위해 해러웨이는 반려견과의 진화, 사랑, 훈련, 품종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반려견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인간도 변해나가는 것이 공진화다. 반려견을 먹여치우는 것은 식인풍속과 마찬가지로 끔찍한 것이다. 한강의 『채식주의자』에서보다시피 그런 살해행위는 인간에게 끔찍한 트라우마가 된다. 그 정도로 인간에게 영향력과 친화력을 발휘함으로써, 반려견 스스로가 인간의 문화적 밭을 변형시키면서 공진화한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흔히 반려견이 보여주는 충성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운운하지만, 그런 사랑은 인간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 반려견은 인간이 자신을 성찰하는 거울이거나, 자아의 표현수단이거나 나르시시즘의 확장이 아니다. 훈련의 경우, 그레이트 피레니즈와 같은 가축괴수꾼 품종과 보더콜리와 같은 목양견들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통해 가축을 지키고 양몰이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자기 일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애정의 경제’에 휘둘리지 않고 인간 반려종과 공생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반려종 선언』은 반려견 암컷 카엔 페퍼와 여자 인간 해러웨이가 거침 없이 타액을 교환하면서 키스하는 ‘소프트 포르노’로 시작한다. 『반려종 선언』에서 해러웨이는 반려견을 폭풍 애정한다. 반려종과 페미니스트 사회주의자, 반인종주의자, 퀴어 동지들과 상상의 코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선언문의 의미일 것이다. 종을 넘어선 사랑으로 인해 그녀는 카엔과 기꺼이 타액, 바이러스, 호르몬, 심지어 DNA까지 나눈다. 해러웨이에게 관한 다큐인 『다나 해러웨이 지구생존가이드』(2016)에 이르면 카엔은 치매노견이 되어 해러웨이의 보살핌을 받는다. 두 반려종은 삶을 나누듯 죽음도 나눌 것이다.

『반려종 선언』은 다양한 사건들의 매듭과 포착과 관계맺기에 의해 가능해진 괴상한 친족 만들기를 주장한다. 생물학적 혈연과는 상관없는 혼종, 잡종들의 관계맺기라는 점에서 반려종은 괴상한 친족관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인간/동물/곤충/바이러스/AI(인공지능)/AI(조류독감)/별레/퇴비에 이르기까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반려종은 지구생존 가이드이자, 망가진 지구상에서 타자들과 더불어 되기(becoming with)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종 선언은 사이보그 선언보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치적 입장에서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공산권의 붕괴로 희망을 배신당한 서구백인 중산층 지식인 좌파 페미니스트들 상당수가 ‘사회 보호’보다는 ‘자아의 배려’로 선회했다. 많은 경우 그들은 타로, 명상, 요가, 영성, 채식주의자, 생태주의자, 그리고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방향으로 전향했다. 해러웨이의 반려종 선언도 그런 선회의 한 형태처럼 보인다. 반려종 논의에서 핵심인 반려견은 교외에 사는 백인 중산층이 아니면 더불어함께 하기 힘들다. 서구 좌파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 올바름’과 윤리적 취향이 반려견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한국 사회에서는 중산층 되기를 포기한 대가로 비혼 반려종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2017년 보건사회부 한 연구원은 한국 사회 저출산의 원인을 스펙 좋은 한국여자들 탓으로 돌렸다. 그는 여자들이 스펙 쌓느라 결혼적령기를 넘기지 않도록 고스펙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기막힌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마음에 맞지 않는 한국 남자들과 결혼하느니 고양이를 데리고 살겠다는 것이 ‘스펙 좋은’ 젊은 여성들의 격렬한 반격이었다. 많은 여성들은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중산층의 안정된 지위를 포기하면서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기를 선택한다. 비혼반려가구로 사는 것 자체가 한국의 젊은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 선택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기생충』에서보다시피 상류층의 반려견들은 인간 기생충보다 서열에서 상위에 위치한다. 인간 반려종들 사이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 사이의 불평등 또한 심화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시대의 생태서식 환경이다. 그런 점에서 중산층 중심의 생계정치윤리인 반려종의 한계는 명확해 보인다.

이런 한계를 의식하고 있는 만큼, 『반려종 선언』 이후 해러웨이가 지상의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되기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곤경과 함께 하기(Staying with the Trouble)』(2016)에 이르면 반려종은 거름과 벌레, 바이러스로까지 확장된다. 거름에서 생긴 벌레가 변태하여 나비가 되고, 인공지능(AI)이 조류독감 바이러스(AI)를 교환하기에 이른다. 반려종은 다른 반려종의 유전자와 면역체를 상호 교환하는 공진화생명체가 된다. 생명체인 원형질에 비생명체인 후형질이 공존하고, 삶의 타자로서 죽음이 공존한다. 썩고 죽고 변태하는 반려종들은 동등하게 존재의 안무에 동참한다. 그런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유토피아적인 사유를 통해 인간반려종은 존재들의 실뜨기 놀이에 참여하게 된다.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맺는 과정에서 사이보그-반려종 자매는 이성애주의의 정상성, 자본주의의 생산성, 인간중심주의의 우월성, 여성만을 챙기는 여성주의의 순결성을 인용하면서 파괴하고 균열을 내면서도 공모한다. 그러니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인간 아이 생산을 멈추고, 괴상한 친족 사이보그 반려종을 만들자! 그것이 해러웨이의 구호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그런 구호는 이미 한국 페미니즘에 하나의 생존 가이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